

동네슈퍼 야간 무인운영 돕는다 은퇴한 전문인력 통합돌봄 서포터즈 직무교육

전주시, '스마트슈퍼 육성 지원사업' 선정... 경쟁력 강화 위해 시스템 지원

최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편의점의 무인화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간 무인화 시스템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슈퍼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동네슈퍼 25개소에 무인운영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 지원사업은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장비와 기술 교육,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CCTV, 보안장비, 담배 판매 분리셔터, 주류 판매 잠금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해 동네슈퍼가 야간에도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 미만 동네 슈퍼로 연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시는 다음 달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접수받아 현장평가를 거친 뒤 지원점포를 선정, 선정된 점포에 약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무인

운영을 통한 24시간 운영시스템으로 동네슈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 단축 및 저녁시간 보장으로 점포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동네슈퍼는 1인 사업자 형태의 가족 중심 경영구조로 야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인 시스템을 통해 심야 시간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진계획에 맞춰 스마트슈퍼를 단계적으로 점차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만 60-65세 미만 건강보험공단 퇴직자·간호사 등 활용해 돌봄 서비스 지원

전주시가 간호사 등 은퇴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건강·방역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전문문화전당과 전주중부비전센터 등과 zoom교육을 동시 활용해 통합돌봄 서포터즈 254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만 60~65세 미만의 건강보험공단·복지시설 퇴직자, 간호사 등 전문성 있는 은퇴인력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선발해 돌봄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2기가 운영된다.

직무교육은 ▲통합돌봄 세부사업 안내 ▲웰다잉 이해 ▲인생노트 개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으며, 노인일자리 기본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을 받은 서포터즈들은 향후 노인들을 통합돌봄 대상 노인들에게 ▲건강지킴이 활동 ▲방역지킴이(생활방역) ▲자기결정권 교육 ▲방문서비스 ▲통합돌봄 사업 홍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전문문화전당과 전주중부비전센터 등과 zoom교육을 동시 활용해 통합돌봄 서포터즈 254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후에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최근 은퇴한 전문인력을 통합돌봄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고 참여자와 대상자 모두의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통합돌봄 서포터즈를 통해 돌봄

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전주·서원·효자 시니어클럽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해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시민원탁회의 우수 참가자, 전주시 일일 명예시장 위촉

베스트 시민참여상 수상한 김재수 씨

전주시는 15일 김재수(50·중노송동) 씨를 제16대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김재수 씨는 지난해 열린 제10회 전

주시민 작은 원탁회의 '코로나 백신 만들기·백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토론에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베스트 시민참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받은 김재수 일일 명예시장은 먼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사업 현황을 듣고 희망층 임대주택을 견학한 후 전라감영 복원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그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숲 1963 추진단을 방문해 종합운동장 개발 현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을 찾아 도서관 개관 취지 및 운영 방향을 보고 받고 인근 VR·AR 제작점센터도 방문했다.

김재수 일일 명예시장은 "평소 도시 재생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일시장이 되어 구석구석 돌아보고 추진상황을 알 수 있어서 뜻깊었고, 시민의 숲 1963 추진단,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등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아 앞으로의 전주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진북동 도토리골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전주시가 진북동 도토리골 주민들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입해 진북동 도토리골 새마을을 사업지 내 31가구를 대상으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진북동 도토리골 마을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노후화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사)한국해비타트와 진행된다.

시는 이날 말부터 (사)한국해비타트와 연계된 KCC, 코멕스 등의 현물 후

원을 통해 노후주택의 도배·장판 교체, 창호공사 등을 추진하고, 보일러 교체, 화장실 수리, 외부벽체 보수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민속도가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미얀마 유학생들 위로

전주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9명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고국을 걱정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승수 시장은 15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9명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현재 전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으로는 전북대 10명, 전주대 3명, 기전대 2명, 전주비전대 6명 등 총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얀마 유학생들이 그동안 전주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했다.

유학생들은 이날 "군부의 무차별한 폭력이 확산되는 것은 멈출 수



김승수 시장은 15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9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군인들 난입을 막기 위한 철문 지원 ▲가정용 열쇠를 포함한 잠금 장치 지원 ▲CCTV 지원 ▲의료 및 식량 지원 ▲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학생들과의 소통도 계속 하

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시는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 모임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